南汀 김규환과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한국 언론학의 제도화는 195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학과가 홍익대학교에 창설되었고, 1958년에는 중앙대학교 신문학과(현 신문방송학부)가 설립되었다.[1] 또 1959년에는 牛堂 곽복산을 비롯해 임근수, 최준, 오주환, 장용 등의 주도로 한국신문학회(현 한국언론학회)가 창립되었고, 다음해 4월에는 신문학회의 학술지 『신문학보』가 창간되었다.

이 무렵 제도화 초기의 한국 언론학은 신문과 저널리즘 중심의 '전통적 신문학'으로 종종 '협의의 신문학'으로도 부른다. 전통적 신문학은 독일의 신문학과 미국의 저널리즘 연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곽복산을 비롯해 한국 언론학의 선구자들은 일본 신문학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 신문학의 뿌리는 독일 신문학에 있었으므로 초기의 한국 언론학은 독일 신문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이다.[2] 여기에다 해방 후 미국의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1950년대에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단기 교육을 받은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저널리즘 연구가 소개되면서 독일 신문학과 함께 미국의 저널리즘 연구가 초창기 한국 언론학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신문과 저널리즘 중심의 '전통적 신문학'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미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빠른 속도로 도입되면서 한국 언론학이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지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부를만한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는 南汀 김규환이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규환은 1959년에 동경대학에서 사회학박사를 받고 귀국하여 언론계에 종사하다가 1963년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현 언론정보연구소) 창설을 주도하고, 이어 1968년에는 신문대학원 설립과 함께 초대 원장에 취임하였다. 박사학위 논문명이 "식민지하 조선에 있어서의 언론 및 선전 정책사"였으므로,[3] 김

---

1) 홍익대 신문학과는 1962년에 중앙대 신문학과에 흡수 통합되었다.

2) 한국 언론학의 태두 牛堂 곽복산은 1932년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거쳐 소피아(上智)대학 신문학과에 입학한 후 1935년에 1기생으로 졸업했다. 그는 동아일보 등 언론계에 종사하다가 해방 후 1947년 4월에 '조선신문학원'(후에 서울신문학원으로 개칭)의 개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1954년에는 홍익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학과를 창설하였고, 1959년에는 한국신문학회 창설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한편 한국 언론학의 선구자들 가운데 이해창과 박유봉도 소피아대학 신문학과 출신들인데 이들은 나중에 독일에 유학하여 직접 독일 신문학을 전공하였다.

3) 김규환의 박사논문은 『일제의 대한 언론·선전정책』이란 이름으로 번역되어 1978년 이우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규환은 말하자면 1928년 독일 라이프찌히대학에서 신문학 박사를 받은 김현준에[4] 이어 한국인 언론학 박사 2호였던 셈이다. 그러나 정진석(1999)의 평가처럼, 일제 시대는 언론학이 뿌리내리지 못하여 김현준은 언론학자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김규환이 실질적으로 국내 최초의 언론학 박사나 다름없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 언론학의 성장 과정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김규환의 생애를 소개하고 그가 한국 언론학이 '전통적 신문학'에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조명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미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글을 한국언론학회가 발간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창간호(2005)에 "초창기 한국 언론학의 제도화와 정체성 변화: 南玎 김규환 소고"란 제목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 이 글은 기왕에 발표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2. 김규환의 생애: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교차로에서"

김규환은 1929년 2월 12일 경상북도 선산군 장천면 상장동에서 김동석과 장옥선의 4형제 가운데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아버지 김동석은 오상중고등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이자 제4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었다.[5]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규환은 1945년 3월에 경복중학교를 졸업하고 11월에 경성대학 예과 문과 을류에 입학하여 1947년 6월에 수료하였다. 1947년 9월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에 진학하여 3년을 수료하고 1950년에 일본으로 건너간 뒤 1952년 4월부터 1954년 3월까지 동경대학교 신문연구소 본과를 수료하였다. 이어서 1954년 4월에 동경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1955년 3월에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59년 3월에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규환은 그해 4월부터 1960년 4월까지 동양통신사 주일특파원으로 근무하였다. 그와 동양통신사와의 관계는 쌍룡그룹 창업자 성곡 김성곤과의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부친과 절친한 사이였던 김성곤은 김규환의 후원자로서 그의 유학을 도왔고 졸업 후에는 동양통신사를 발판으로 김규환이 언론인으로서 화려한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1960년 4월에 귀국한 김규환은 동양통신사 외신부장 겸 편집부국장에 임명되었고, 1965년 4월에는 편집국장으로 승진하여 1967년 10월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할 때까지 동양통신사 편집국을 지휘하였다. 언론인으로서 김규환의 활동은 동양통신사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상업방송국

4) 김현준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1920년대에 독일에 유학하여 1928년에 라이프찌히 대학에서 "동아시아(중국·일본·한국)에 있어서 근대신문의 형성"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보성전문의 교수가 되어 사회학을 가르쳤다. 광복 후에는 전주사범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조선대학교 문리학부장으로 재임중 1949년 7월에 급환으로 별세했다. 정근식(1995) 참조.

5) 2남 김윤환은 언론인 출신으로 제1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5공과 6공을 거쳐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5선 의원을 지낸 거물 정치인이었으며, 4남 김태환은 구미(을)의 현역 재선의원이다.

‘라디오 서울’의 개국에도 관여했는데, 1962년 12월에 라디오 무선국 설치 허가를 받은 라디오 서울이 1964년 5월에 개국하여 정규방송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초대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6)]

한편 김규환의 언론 활동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그가 누구보다도 한국 언론의 국제화에 앞장섰다는 점이다. 1959년 김규환이 박사학위를 받고 동양통신사 주일특파원으로 일하던 무렵 한국 언론의 대외적 목표 가운데 하나가 국제신문인협회(IPI: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가입이었다. IPI는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미국신문편집인협회 주도로 1951년에 14개국 언론인들이 참여하여 만든 국제언론기구이다. 한국은 1956년부터 가입을 원했으나 언론자유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김규환은 1959년에 동베를린에서 열린 제8차 IPI 총회에 장기영, 김성곤, 홍종인, 박권상 등과 참가한 후 IPI 가입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고, 마침내 1960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무너진 후 IPI는 한국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그리하여 김규환은 1961년에 발족한 IPI 한국위원회의 초대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후 20년 동안 수십 차례 IPI의 국제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며 한국 언론의 국제화에 이바지했다. 또 IPI의 사무국장으로서 IPI가 한국의 언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벌인 각종 사업에 김규환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64년에는 IPI 사무국장으로서 ‘윤리위파동’을 수습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한국신문연구소[7)] 창설에도 설립준비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IPI와 함께 김규환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제 언론단체는 아시아신문재단(PFA: Press Foundation of Asia)이다. 이 재단은 IPI의 아시아 프로그램이 종결됨에 따라 1966년 아시아지역의 신문인들이 신문 제작과 보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구이다. 김규환은 이 재단의 창설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본부 이사에 피선되었고, 1985년 별세할 때까지 한국대표로 이사회와 총회에 빠짐없이 참여하였다. 특히 그는 1967년 10월에 PFA으로부터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에 ‘독자조사연구센터’를 유치하고 동센터의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IPI 및 PFA와 연계된 국제 활동과 함께 김규환의 언론 활동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언론인 재교육이다. 김규환은 1960년 일본에서 귀국하여 동양통신사 편집부국장에 취임하자 곧 편집국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회의실에서 ‘토요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의 목적은 “기자들 상호간의 학문적 토론과 상이한 전문분야에 관한 횡적인 견해를 종합”함으로써 보도의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것인데(정진석, 1999), 김규환이 일찍부터 기자들의 재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실제로 김규환은 동양통신사 근무시절 여러 논문을 통해 신문기자의 자질과 윤리 수준

---

6) 라디오 서울은 삼성그룹의 소유가 되어 홍진기가 제2대 사장에 취임하였고, 이듬해 8월에는 ‘중앙라디오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66년에 ‘동양방송’(TBC)이 되었다(정진석, 1999).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양방송은 1981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한국방송(KBS)에 흡수되었다.

7) 1962년 4월 한국편집인협회 제8차 정기총회 결정으로 홍종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문연구소 설립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후 2년이 지난 1964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기해 한국신문연구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초대 소장은 홍종인이었으며 연구지로 <신문평론>을 발간하였는데, 동 연구소는 1981년 6월에 해체되어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재단)의 모체가 되었다.

을 향상시키는 것이 언론 발전의 첩경이며, 이를 위해서 언론인의 재교육과 언론학 교육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였다. 그가 한국신문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창설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도 바로 그런 신념 때문이었다.

서울대 신문연구소의 창설은 김규환의 숨은 노력에 의해 이뤄졌다. 5.16 이후 군사정부 최고위원회는 1962년 6월에 '언론정책에 관한 권장책'을 공포하고 이어서 7월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언론정책 시행기준'을 발표했다(정진석, 1999). '언론정책'에는 언론연구와 연수를 위한 기구의 설립계획이 포함되었고, '언론정책 시행기준'에는 서울대학교에 신문연구소 설치한다는 규정(제10항)이 들어 있었다. 결국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의 설립은 이 규정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김규환의 회고에 따르면 김규환이 당시 공보부장관 이원우에게 요청하여 이 규정이 들어갔다고 한다(김규환, 1977). 아무튼 1962년 12월 각의는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의 설치를 의결하였고, 1963년 3월에 20명의 현역기자를 제1기 연구생으로 모집하였다. 연구소의 초대 소장에는 경제지리학자 육지수 교수가 임명되었는데 당시 서울대에는 신문학을 전공한 전임교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규환은 동양통신사 편집부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신문연구소의 연구부장을 맡아 연구소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매스컴 연구를 지향하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험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저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김규환(1977)의 회고에 따르면 서울대 신문연구소는 그가 수학했던 동경대의 신문연구소를 모방한 점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몇 년간 교육을 실시하고 보니 연구생들이 연구생 과정을 석사과정으로 승격해 주기를 열망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매스컴 연구기관으로서 미국의 저널리즘 스쿨과 같은 체제와 기능을 갖춘 신문대학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규환은 1967년 10월 4일 동양통신사 편집국장직을 사임하고 서울대학교 교수에 임명되었는데 육지수 교수의 작고로 후임 신문연구소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신문연구소장에 임명되자 곧 신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했는데, 언론계의 협조를 얻어 마침내 정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1967년 12월 14일 대통령령 3303호로 신문대학원 설치가 국회를 통과하였다. 신문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던 김규환은 1968년 1월 4일 신문대학원 초대 원장에 임명됨으로써 당대 최고 수준의 언론학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동시에 책임지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위치는 그가 언론계, 관계, 정계, 재계에 가지고 있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한국 언론학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의 영향력은 한국신문학회에 즉각 반영되었다. 한국신문학회는 1959년 6월 곽복산을 중심으로 창립되었지만, 1960년에 『신문학보』 창간호를 내놓은 이후 8년 동안 거의 정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학회 활동을 주도할만한 연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

이다. 그러던 차에 신문학회는 1968년 5월에 서울대 신문대학원 소강당에서 8년 만에 총회를 개최하고 학회의 영문 명칭을 “Korean Society of Journalism"에서 ”Korean Society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으로 바꾸는 등 회칙을 개정하고 새 출발을 기약하였다. 이런 변화의 핵심에 김규환이 있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1969년 5월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김규환을 곽복산에 이어 제2대 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신문학회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신문학회의 활성화에는 성곡언론문화재단 및 성곡학술문화재단의 재정적 후원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 김규환은 동양통신사장 김성곤이 196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 공익재단으로 설립한 성곡언론문화재단의 운영위원으로서 재단의 기획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 또 김성곤이 1969년 설립한 성곡학술문화재단의 설립과정에도 깊이 관여했으며 재단 설립 후에는 이사 겸 책임간사로 재단 운영을 관장하였다. 그의 노력으로 성곡언론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은 신문학회는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외국 학자들을 초청하는 등 학회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또 그의 회장 취임 후 속간된 『신문학보』 제2호는 성곡학술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다.

한국신문학회의 제2대 회장으로서 신문학회를 중흥시킨 김규환의 역할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본다. 그의 노력과 헌신으로 신문학회는 오늘날 한국 사회과학을 대표하는 학회의 하나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김규환은 학회 활동 외에도 1970년에는 한국방송윤리위원회 위원장에 피선되어 1973년 3월까지 재임하였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활동 경력과 더불어 그가 한국 언론의 윤리 확립에 큰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김규환은 1974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이 폐지되고 다음 해에 신문학과가 창설된 후에도 신문연구소(현 언론정보연구소)의 소장을 맡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쳤으나 1985년 7월 5일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14년이 되는 1999년 3월에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동창회는 그를 추모하는 책을 엮어 내었다. 추모집의 제목은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교차로에서”이고 부제는 “남정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실천”이다. 이 제목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길목에서 보다 생생한 현실과 이론의 접합 과정에 눈을 돌려 볼 수가 있었다”(김규환, 1973, 7쪽)는 그의 술회에서 따온 말이지만 그의 생애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3. 김규환: “한국의 윌버 슈람”

김규환은 흔히 미국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선구자인 윌버 슈람(Wilbur Schramm)에 비교된다. 김규환의 언론활동과 학문세계를 추모한 글에서 최종수(1999)는 그를

“한국의 슈람”이라고 부르면서, “만약 김규환을 한국언론학의 ‘선도자’라고 주장한다면 무슨 소리냐고 당장 거센 반발이 나오겠지만, 그를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선도자’라고 주장한다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23쪽)라고 말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슈람은 확고한 비전을 갖고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문을 제도화시킨 인물이다. 원래 아이오아대학 영문학 교수였던 슈람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정보통계국(OFF)과 그 후신인 전시정보국(OWI)에 근무하며 많은 사회과학자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면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학’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 1943년에 그러한 비전을 갖고 아이오아 대학으로 돌아온 그에게 저널리즘 스쿨 학장 자리가 주어진 것은 우연이자 기회였다. 학장이 된 슈람은 사상최초로 매스 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1946년에는 ‘수용자조사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어 1947년에 일리노이대학으로 옮긴 슈람은 여기서도 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을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를 설립했다. 1955년에 스탠포드대학으로 옮긴 슈람은 같은 해 칠톤 부시(Chilton Bush)가 설립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1957년에는 연구소 소장에 취임한 후 16년 동안 스탠포드대학을 이끌면서 미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학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슈람 자신은 라스웰(H. Lasswell), 라자스펠드(P. Lazarsfeld), 호블랜드(C. Hovland), 르윈(K. Lewin)을 커뮤니케이션학의 4비조로 칭했지만, 로저스(Rogers, 1994)는 슈람이 바로 미국 커뮤니케이션학문의 진정한 창시자라고 말한 바 있다. 적어도 제도화란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슈람이 말한 4비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성립에 공헌 했지만, 슈람보다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제도화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없었다. 슈람은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제도화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임했고, 또 그의 동료와 제자들이 이 작업에 동참했다. 슈람은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명칭의 단위조직을 최초로 만들었고, 커뮤니케이션 강좌를 위한 교과서를 최초로 저술했으며, 커뮤니케이션 전공의 박사학위를 최초로 수여했고, 무엇보다도 이 세계에서 ‘커뮤니케이션학 교수’라는 직책을 가졌던 최초의 사람이었다(Rogers, 1994, pp. 446-447).

김규환은 1950년대에 동경대학에서 수학했지만, 미국에서 슈람의 주도로 힘차게 성장하고 있던 ‘사회과학으로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당시 일본의 언론학계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슈람이 편저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출판되자 곧 일어로 번역되어 대학교재로 사용될 정도였다. 특히 김규환이 수학했던 동경대학의 신문연구소는 일본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중심에 있었다. 실제로 김규환이 1955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외국 뉴스의 선택과 평가”는 1949년에 발표된 화이트(D. Manning White)의 고전적인 게이트키핑 연구를 독창적으로 응용한 것으로, 1957년 일본신문학회의 학술지인 『신문학평론』에 게재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

종수, 1999, 47쪽).

슈람에 대한 김규환의 존경은 대단했다. 슈람을 직접 만나기 전부터 그는 슈람과 스탠포드대학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8] 실제로 신문대학원의 교과과목 및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김규환은 모교인 동경대 신문연구소 및 동대학원 과정의 그것과 스탠포드대학의 과목 및 내용을 참고했다고 한다(김규환, 1977, 4쪽). 그가 슈람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는 신문대학원 시절을 회고하며 남긴 다음의 글에서도 알 수 있다.

>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동시에 언론인의 재교육이라는 두 개의 임무를 가진 신문대학원을 회상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W. Schramm 박사의 필자에 대한 자부(慈父)와 같은 계시와 지도이다. 이분을 처음 만난 것은 1968년 초여름 일이다. 당시 신생 신문대학원의 원장으로서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의 각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기관을 순방할 기회를 가졌다. (김규환, 1977, 6쪽).

김규환은 먼저 예일대학을 방문하여 라스웰을 만났다가 그의 소개로 스탠포드대학에서 슈람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이 만남 이후로 김규환은 신문대학원 운영과 관련해 슈람의 조언을 청했고, 슈람은 김규환의 초청으로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앞의 인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신문대학원은 커뮤니케이션연구와 언론인 재교육이라는 이원적인 목표를 갖고 설립되었다. 그러나 신문대학원 교과과정을 보면 언론관련 실무교과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론중심적인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강수(1973)가 정리한 1970년대 초반의 신문대학원 교과과정을 보면 약 30개의 교과목 가운데 이론 중심의 매스컴 과목들과 인접 사회과학 과목들이 대부분이고 신문학원론, 한국신문사, 비교신문학 등 전통적 신문학의 범주에 드는 과목은 대여섯 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그 과목들도 실무과목은 아니어서 교과목 편성으로 볼 때 신문대학원의 지향점이 저널리즘 실무 중심의 재교육이 아니라 사회과학으로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교육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김규환의 비전: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슈람과 마찬가지로 언론학을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규정하고자 했던 김규환의 비전은 그가 남긴 많은 논문과 글에서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계기를 맞아 커뮤니케이션 학문에 대한 그의 생각을 피력했던 글 3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는 서울대 신문연구소의 학술지 『신문연구소학보』 창간호를

8) 김규환은 동경대 유학시절에 스탠포드대학을 거의 방문할 뻔 했다는 말을 필자에게 한 적이 있다. 1984년에 그는 동경대 유학시절 자신이 스탠포드대학으로부터 초청받았다는 기사가 당시의 학교신문에 났을 것이니 찾아봐 달라는 편지를 유학중이던 필자에게 보냈다.

내며 쓴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방향”이란 권두언(김규환, 1964)이고, 둘째는 한국신문학회의 『신문학보』 제2호에 학회장으로서 기고한 “커뮤니케이션과학 연구의 현황과 방향: 학보 속간에 즈음하여”란 권두논문(김규환, 1969)이고, 셋째는 1977년 민중서관에서 출간한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라는 책의 서문으로 쓴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출발을 회고하며”(김규환, 1977)이다.

1) 『신문연구소학보』 창간호의 권두언

김규환은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기형적이긴 하지만 점진적인 근대화의 결과 사상·감정의 전달·교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또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현실성을 가진 사회현상으로서 이론적 연구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매스 미디어의 자유와 책임 등 전통적인 저널리즘 연구보다 “더욱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영역”을 다루며,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 근본적 과제는 커뮤니케이션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및 행동형태간의 체계적 관련성의 종류 및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규환은 미국에서도 아직 성과있는 연구업적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이제 겨우 출발점을 지난 단계라면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급선무로 갖추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하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분야에 대하여 인접과학으로부터의 더욱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하겠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 DATA를 계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과정, 효과에 관한 이론의 체계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2) 『신문학보』 속간 기념 권두논문

이 논문은 한국신문학회의 학술지로 1960년에 창간된 『신문학보』가 그 후 오랫동안 발간되지 못하다가 1969년에 속간될 때 권두논문으로 게재된 것이다. 김규환은 한국신문학회 초대 회장인 곽복산을 뒤이어 1968년에 2대 회장에 취임하고 그가 주관하고 있던 성곡학술문화재단의 재정적 보조를 얻어 휴면 상태에 있던 『신문학보』를 속간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김규환은 미국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사회과학의 관심분야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개관하고, 미국의 매스컴 연구를 전후에 도입한 일본과 독일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한국도 이 분야의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 매스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소개된 것은 일본보다 수년이 늦은 1950년대 후반이며, 이 무렵부터 대학에 매스 커뮤니케이션 강좌가 개설되고 논문도 발표되었지만 실증적 연구가 없었다는 점

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그러나 1962~3년까지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관계연구자의 대부분의 관심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적 고찰과 자유와 책임에 관한 문제들, 즉 정치권력과의 함수관계에 있어서의 신문의 위치를 고찰하는데 있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었지만 사실은 저널리즘적인 문제제기 방식으로서 매스 커뮤니케이션과정, 특히 송신자와 수신자의 상호관계나 내용 또는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연구는 볼 수 없었다. (김규환, 1969, 10쪽).

김규환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사회과학 방법론에 입각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인접학문의 광범위한 협력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분야이며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나 연구방법으로 편중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서문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1977년에 서울대 신문대학원 창설 10주년과 신문연구소 창설 15주년을 기념하여 신문대학원 석사논문을 중심으로 묶어 출간한 책이다. 이 책의 서문에서 김규환은 두 기관의 창설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기념논문집을 간행하게 되어 “감개무량한 바를 금할 수 없다”고 하며 두 기관의 설립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아울러 초창기 한국신문학회의 일화도 소개하였다. 신문연구소 초창기를 회고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 초기의 선구적인 경험적 data의 축적을 위한 논문은 지금의 학적 수준에서 보면 초보적이고 미국의 연구방법의 기초적 모방에 지나지 않았지만 신문연구소의 당시의 연구생들은 새로운 학문에 대한 개척자로서의 열의와 의욕을 불태우면서 커뮤니케이션 과학에 도전하였다.(김규환, 1977, 2쪽).

또 신문대학원 폐지와 관련해서는 신문학과 신설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지만 언론인 재교육기관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의 정세나 매스 미디어 산업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신문대학원 창설 당시에 전망했던 재교육 희망 언론인 수가 1972년경에는 대폭 감소해서 신문대학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웠음을 토로했다(김규환, 1977, 5쪽).

5. 언론학의 주류가 된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김규환의 강력한 리더십에 힘입어 그가 제창한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1970년대에 한국 언론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김규환은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와 신문대학원을 통해 언론계에 막강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동시에 실증적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세례를 받은 대규모의 연구자 집단을 배출하였다. 1974년 말에 신문대학원이 폐지되기까지 신문대학원 출신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의 수는 134명에 달하고, 실제로 이들 가운데 언론학 교수 30여명을 비롯해 60여명이 대학의 전임교수가 되었다(최종수, 1999, 40~41쪽). 뿐만 아니라 해외(특히 미국)에서 실증적 언론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연구자들이 교단에 서기 시작하면서 한국 언론학은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학'으로 그 정체성을 굳혀 나갔다.

김규환은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연구'가 한국 언론학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다. 1983년 서울대 신문연구소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그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김규환은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그 과거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 1963년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기관으로 서울대학교에 신문연구소가 설립되어 다음해부터 내용분석이나 사회조사에 의한 연구논문이 나와 이른바 실증적 또는 경험적 연구풍토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과학의 시초라 하겠다.
>
> 회고컨대 1960년대초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연구 출발기의 과제는 인접과학으로부터 보다 많은 참가를 받아들이는 연구의 종합성과 학제적 접근방식(inter-disciplinary approach)의 확립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경험적 연구방법에 의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이론의 체계화였다.
>
> 이 초기단계가 한층 더 발전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학문의 연구가 본격화한 것은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를 모체로 1968년에 신문대학원이 설치되었을 때였다. 그와 아울러 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고 1970년도부터 많은 석사논문이 발표되는 가운데 경험적 연구가 한국의 커뮤니케이션연구 가운데에 정착하게 되었다.
>
> 1959년 이래 부진상태에 있던 한국신문학회가 1968년부터 활동을 재개하여 이때부터 커뮤니케이션연구는 새로운 발전기를 맞이하여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어서 미국에서 실증적 학풍을 배워온 학자들이 교단에 서기 시작하면서 정치·세련된 실증적 연구방법론이 이식되었다.(....)
>
> 이로써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은 단순히 "매스 미디어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사회적 전달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행동과학적 사회과학으로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김규환, 1983, 79-80쪽).

요컨대 한국 언론학은 1970년대에 이르러 초기의 전통적 신문학에서 경험주의적·행동과학적 사회과학의 성격을 띤 커뮤니케이션 학문으로 그 정체성이 변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1950-60년대에 미국 언론학계가 경험한 저널리즘 연구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 간의 갈등과 그 결과를 연상케 한다. 흔히 "녹색챙"(Green-Eyeshades)과 "카이-스퀘어"(Chi-Squares)의[9] 대결이라고 부르는 이

갈등은 대학에서 그리고 미국언론학회(AEJ)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학과나 대학의 명칭을 “저널리즘”으로 하느냐 “커뮤니케이션”으로 하느냐, 언론학교육에서 사회과학의 역할은 무엇이냐,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언론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론적 기초는 무엇이냐를 둘러싸고 많은 대학에서 갈등이 있었다.

갈등의 초기에는 수적으로 열세였고 나이도 젊은 “카이-스퀘어”들이 불리했지만,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대학당국자들에게 사회과학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들 박사출신 소장교수들은 빠른 속도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또 “녹색 챙”들을 옹호했던 신문소유주들도 점차 “카이-스퀘어”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신문소유주들은 처음에는 젊은 커뮤니케이션 교수들의 언론인교육 능력에 회의적이었으나, 여론조사나 마케팅조사와 같은 응용연구가 언론사에도 유익함을 알게 되면서 호의적으로 변해 갔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카이-스퀘어”세대가 대학의 주류가 되면서 미국 언론학계도 슈람이 소망한대로 사회과학 방법론에 근거한 경험주의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970년대의 한국 상황이 미국과 비슷했다. 내용분석, 서베이, 실험 등 이른바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무장한 경험주의 연구자들은 점차 학계의 주도권을 잡아 나갔다. 특히 미국에서 교육받은 연구자들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그러한 경향은 가속화되었다. 1973년『신문평론』11월호에 게재된 전국 신문방송학과 전임교수 일람표를 보면, 전임강사 이상 전임교수 37명 가운데 미국에 유학한 사람이 25명(67%)으로 압도적이다. 미국유학생 우위의 이런 현상은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 사회 특유의 ‘미국박사’ 선호 현상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미국의 경험적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한국 언론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6. 맺는말

김규환이 설정한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학”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한국언론학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남아 있다.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미디어영상학과 등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한국의 언론학과는 대부분 사회과학대학 또는 사회과학 계열의 학부에 소속되어 있다. ‘사회과학으로서의 언론학’은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리서치’를 정체성의 핵심으로 간주했기에 전통적인 신문학에 비해 실무교육 또는 직업교육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언론학은 학부교육의 현실적합성 문제를 놓고 “언론학 교육의 문제점과 미래의 전망”과 같은 주제로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던 것이다.[10]

---

9) ”녹색 챙“이란 밝은 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편집기자들이 한때 썼던 보안용 셀룰로이드 챙을 말하는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과학보다는 전문직업교육 중심의 언론학을 옹호했던 저널리즘 교수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반면에 “카이-스퀘어”는 유의도검증 통계의 하나인 카이-스퀘어에서 나온 말로, 방법론에 기초한 과학적 접근을 주장했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을 지칭한다. Rogers(1994), pp. 460-465 참조.

이 문제와 관련해 강현두(1994)는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1994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주최한 월례발표회에서 강현두가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제기는 곽복산의 신문학에서 김규환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한국언론학이 진화했다는 이른바 '한국언론학사의 연속성' 가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초기의 한국언론학을 기술한 연구들은 대개 곽복산의 신문학이 진화·발전된 형태가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라고 보면서 한국언론학의 역사를 곽복산 신문학의 진화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11] 강현두는 이러한 해석이 "곽복산 신문학의 시대에서 서울대 신문대학원의 김규환 언론학의 시대로 옮아가는 학문과 학회의 변천과정에 연속성을 부여하려는 설명"이라고 본다(강현두, 1994, 7쪽).

강현두(1994)가 대안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곽복산의 신문학' 시절에 이미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교육이 서울대학교 문리대 사회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1949년에 곽복산이 시작했던 문리대 '신문학개론' 강좌는 한국전쟁으로 중단되고 1953년부터 재개되었는데, 불과 2년 뒤인 1955년부터 문리대 사회학과에서는 '매스컴론'을 개설했고 천관우가 이를 맡았다는 것이다.

강현두의 이러한 지적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50년사'에 따르면 언론학 관련 과목으로 1952년에 이미 "여론과 선전"이 개설되어 변시민이 강의를 담당했고 1955년에는 "매스컴론"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사회학과에서는 이상백, 최문환, 변시민, 이만갑 등 많은 교수들이 매스컴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이상백은 저널리즘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비판성에 있다고 하면서 매스컴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고 한다(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996).

강현두는 1957년에 자신이 곽복산의 '신문학개론'과 천관우의 '매스컴론'을 직접 수강한 경험을 제시하면서, 두 강좌는 강의 내용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계열의 언론학 과목이었다고 한다(강현두, 1994, 9쪽). 즉 전자는 "실무적 저널리즘에 관한 내용"이었고, 후자는 "사회과학적 매스컴론"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현두의 주장은 '신문학개론'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신문학과 '매스컴론'으로 대표되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원래부터 이원적으로 병립·발전해 왔으며, 전통적 신문학의 실무적 저널리즘 교육은 단절되고 말았거나 아니면 매스컴 연구에 흡수·통합되었다는 것이다.

강현두의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전통적 신문학과 매스컴 연구의 이러한 단절은 결국 실무적 저널리즘 교육의 '종말'을 가져오고 학부의 언론학 교육 역시 "사회과학

---

10) 이강수(1973, 2001), 차배근(1989, 1993) 등의 연구 외에도 1990년대 이후에 개최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로는 1994년에 연세대 신문방송학과가 주최한 "언론학의 학문적 위상정립과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집담회", 1995년에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발표회에서 마련된 "언론학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세미나, 1996년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창설 30주년(1995) 기념으로 기획된 『커뮤니케이션연구』 특집호, 1997년 한국언론학회 주최의 "한국언론학의 장래와 언론학교육의 방향" 세미나, 2001년 한국언론학대회 공동 심포지엄 "뉴밀레니엄 시대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 등을 꼽을 수 있다.

11) 이러한 견해는 1970년대 초반 한국언론학을 대표하는 책인 『언론학개론』에 실린 곽복산 자신의 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곽복산 (1971) 참조, 곽복산이 1955년에 출간한 『신문학개론』이 전통적인 신문학을 대표한다면, 『언론학개론』에서 곽복산은 다양한 언론현상을 포괄하는 새로운 '언론학'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곽복산의 이러한 주장은 1985년 신문학회의 명칭을 언론학회로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

화"시키고 말았다는 것이다(강현두, 1994, 12-13쪽). 초창기 교수들의 실무경험 부족과 인문학적 소양 부족은 학부의 언론학을 인문주의적이고 실무적인 언론학 교육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소양을 갖춘 일부 교수들은 김규환류의 사회과학적 언론학이 지배하는 분위기에서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강현두가 제기한 문제는 한국 언론학계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할 생각은 없다. 다만 세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언론학 역사의 연속성을 부인하고 저널리즘 실무 교육 중심의 '전통적 신문학'과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학'이 이원적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은 좀 더 검토해 볼 여지가 많다. 곽복산의 신문학은 독일의 이론신문학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제도화되는 순간 저널리즘 실무교육 보다는 이론적·사변적 성격의 신문학이 될 가능성이 컸다. "서울신문학원"과 "홍익대 신문학과"는 아무래도 격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곽복산 신문학의 이론친화적 성격은 역시 이론친화적인 사회과학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곽복산의 신문학에서 김규환의 커뮤니케이션학으로의 변화는 일정한 연속성이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의 편린을 『언론학개론』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김규환의 커뮤니케이션학이 경험주의적·행동과학적 사회과학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곽복산의 신문학과는 인식론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김규환이 이끈 '언론학의 사회과학화'가 저널리즘 실무교육의 종말을 가져와 언론학교육의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다. 이러한 지적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한국의 언론 현실을 고려하면 학부교육 문제의 원인을 언론학계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언론사의 기자충원 시스템은 그 동안 학부의 언론학 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학계와 언론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소수 정예의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는 언론학과라면 교육목표를 기자나 PD 등 전문직업인 양성에 두지 말고 커뮤니케이션 현상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 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본다.

실무교육 문제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실무교육이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아 전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21세기의 한국 언론학은 교육목표를 전통적인 저널리즘에만 둘 수 없게 되었다. 저널리즘보다 훨씬 방대한 문화컨텐츠 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기술적 습득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으로 실무교육의 성격과 내용은 전통적인 저널리즘 실무교육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학의 사회과학화'는 언론학이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학문에 머물지 않고 이론과 방법론을 갖춘 사회과학의 일원으로 변모시켰음을 기억해야 한다. 언론학이 전통적인 신문학에 머물렀다면 오늘날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정보산

업, 영상문화, 디지털, 인지과학, 문화정체성, 전자민주주의, 매체융합 등등의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에 지금처럼 대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1970년대의 주류 언론학은 실증주의적·행동주의적 패러다임이 지배했지만, 1980년대 비판언론학의 거센 도전과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열풍을 거치면서 한국 언론학은 현재 '이론적 다원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언론학의 '사회과학화'는 이 다원주의 시대에 궁극적으로는 언론학이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구사하며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중심 학문이 되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의 다원주의가 '상호 공존은 하되 소통하지는 않는' 폐쇄적 영역주의에 머문다면 한국 언론학은 언젠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문헌

강현두 (1994). 한국언론사 재고.『언론정보연구』, 31호, 1~17.

곽복산 (1971). 언론학형성의 서설. 곽복산(편저), 『언론학개론』(1~27쪽). 서울: 일조각.

김규환 (1964).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방향.『신문연구소학보』, 1호, 7~8.

김규환 (1969). 커뮤니케이션 과학연구의 현황과 방향: 학보 속간에 즈음하여.『신문학보』, 2호, 5~11.

김규환 (1973).『한국의 매스 컴뮤니케이션』.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규환 (1977). 서문. 김규환(편),『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1~9쪽). 서울: 민중서관.

김규환 (1983).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그 과거와 전망.『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그 회고와 전망』(79~82쪽).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서울: 플라자호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996).『서울대학교 사회학과 50년사: 1946-1996』.

양승목 (2005). 초창기 한국 언론학의 제도화와 정체성 변화: 남정 김규환 소고.『커뮤니케이션 이론』, 1호, 1~34.

이강수 (1973). 한국신문학 교육의 문제성과 방향.『신문학보』, 6호, 69~95.

이강수 (2001). 한국언론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뉴밀레니엄 시대의 언론학연구와 교육』. 2001년 한국언론학대회 공동 심포지엄. 한국언론학회 외.

정근식 (1995). 김현준: 근대 사회학의 태두. 정근식 외,『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엘리트』(196~201쪽). 서울: 새길신서.

정진석 (1995).『인물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정진석 (1999).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산학협동.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동창회(편),『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교차로에서: 남정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실천』(61~93쪽). 서울: 한길사.

차배근 (1989). 한국 언론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언론학교육의 성찰』. 한국언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주제논문집. 서울: 프레스센터.

차배근 (1993). 한국에서의 언론학 교육: 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한·중·일 국제언

론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최종수 (1999). 김규환 박사의 언론활동과 학문세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동창회(편),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교차로에서: 남정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실천』(23~60쪽). 서울: 한길사.
Rogers,』 E. M. (1994). *A history of communication study*. New York: Free Press.

<부록>

南玎 金圭煥博士 著書 및 論文 目錄

<學位論文>

1955 外國뉴스의 選擇과 評價. 東京大學 大學院 社會學科 碩士論文.

1959 植民地下 韓國에 있어서의 言論 및 宣傳政策史. 東京大學 大學院 社會學 博士論文.

<著書 및 譯書>

1957 B. Berelson, <內容分析>(共譯). 東京: 미미즈 쇼보.

1970 W. Schramm, <매스 컴뮤니케이션>(譯).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韓國의 매스 컴뮤니케이션> (著)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W. Lippmann, <여론> (譯), 現代思想社.

1977 <韓國 커뮤니케이션硏究> (編), 民衆書館.

1978 <日帝의 對韓言論·宣傳政策> 二友出版社.

1979 오토 러빈저, <說得 커뮤니케이션>(共譯), 전예원.

1982 <日本과 韓國의 文化摩擦>(共編), 東京: 出光書店.

<論文 및 寄稿文>

1957 외국뉴스의 선택과 평가. <新聞學評論>, 日本新聞學會.

1958 외국뉴스의 평가. <신한학보> 제7호.

1960 民主社會와 新聞의 責任: 言論自由의 確保와 發展을 위하여. <思想界> 11월호.

1961 신문의 「중립성」과 「불편부당」: 오늘의 언론계를 바라보며. <財政> 2월호.

1961 IPI 활동과 韓國의 言論. <思想界> 3월호.

1961 韓國 저널리즘의 今昔 - 후진성과 기형성을 탈각치 못한 한국의 저널리즘. <思想界> 11월호.

1962 텔레비전 윤리. <思想界> 6월호.

1962 아시아의 통신사 (뱅코크의회). <신문연구> 제4호.

1962 民主國家에 있어서 政府와 매스 컴뮤니케이션과의 關係. 金容九(편), <自由下의 發展>.

1962 IPI가 본 각국의 언론자유. 공보부, <신문논조평가> 68-69호 論壇.

1964 매스미디아와 문화혁명. 최문환(공편), <이십세기 강좌 제6권; 이십세기의 사회>(pp. 374-384), 박우사.

1964 한말 언론계 잡감. <신문평론> 제1호, pp. 10-12.

1964 시론: 중립성과 시시비비. <신문평론> 제2호, 4-5.

1964 매스콤뮤니케이션 연구의 방향. <신문연구소학보> 제1집.

1964 新聞倫理委員會 運營强化의 理論과 實際. <신문평론> 제7호, 12-15.

1964 韓國 言論自由를 위한 鬪爭-아시아언론 세미나 한국대표 보고 전문. <신문평론> 제8호, 16-18.

1964 IFJ서 협조다짐-인도 「뉴델리」의 IPI 「세미나르」 귀국보고. <기자협회보> 제2호.

1965 김규환 外, 신문연구 좌담회: 신문사설의 기능과 방향. <신문평론> 제9호.

1965 「核力」에 挑戰받는 科學의 交叉路. <新東亞> 1월호.

1965 김규환 外, 신문연구 좌담회: 저널리즘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신문평론> 제10호.

1965 '아세아의 근대화' 국제회의 보고: 근대화와 지식인의 매스콤 활동. <신문평론> 제14호, 45-46.

1966 한국 근대사회에 있어서 신문의 위치. <신문연구> 봄호.

1966 편집인협회 주최 유성 매스컴세미나 보고: 신문과 사회, <신문평론> 제17호, 88-92.

1966 신문학술강연회: 매스커뮤니케이션과학 연구의 제문제, <신문평론> 제18호, 8-10.

1966 한국 언론의 내용과 효과분석 - 언론의 기능과 역기능, <政經硏究> 10월호.

1966 IPI 제15차 총회 보고: IPI는 지역적 특수성 고려하라. <신문평론> 제20호.

1966 김규환 外, 특별수록: 신문독자 조사에 관한 사회조사 결과 보고 - 중심도시의 신문구독에 관한 연구. <신문평론> 제20호.

1966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신문의 위치. <신문연구> 제11호(겨울호).

1966 매스콤 활동을 통한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지식인의 역할. <신문연구소학보> 제3집, 3-10.

1966 신문과 사회 (제1회 한·일 편집간부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매스콤관계 세미나> 제2호, 12월.

1967 대중사회·신문·전파미디아 - 신문의 날 기념논문. 中央日報 4월 6일.

1967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일들. <기자협회보> 제24호.

1968 언론인 재교육 -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開院式 초대원장 式辭. <신문연구학보> 제4집.

1968 최근의 美國 매스 컴뮤니케이션 學界 動向. 동아일보 9월 7-10일.

1968 김규환 外, 한국 경제성장과 매스 컴뮤니케이션. <문교부 연구보고서 (사회과학)>.

1968 김규환 外, 특별부록: 농촌의 신문독자에 관한 연구. <신문평론> 제25호.
1969 한국언론의 좌표. <週刊朝鮮> 4월, 신문의 날 기념 일요논단.
1969 IPI 총회에 다녀와서-이사국이 된 한국언론의 위치. <기자협회보> 제86호.
1969 전자시대의 신문의 역할. <한국신문편집인협회보> 7월 6일.
1969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저널리스트-언론의 주체성 확립을 위하여. <저널리즘> 제2호.
1969 커뮤니케이션 과학연구의 현황과 방향-「학보」 속간에 즈음하여. <신문학보> 제2호, 5-11.
1969 한국신문의 내용과 효과분석. <政經硏究>.
1970 우리의 사회적 발전과 신문-朝鮮日報창간 51주년 기념논문. 朝鮮日報 3월 15일.
1970 김규환 外, 내가 바라는 여기자상. <여성저널> 3월호.
1970 오십년 후의 신문. 東亞日報 4월 1일.
1970 한국신문과 정보사회-신문의 날 기념논문. 新亞日報 4월 6일.
1970 近代化와 未來學의 사이-亞洲근대화회의 참석 보고논문. 東亞日報 8월 24일.
1971 매스 코뮤니케이션과 인권 - 명예훼손과 신문윤리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인권연보>.
1971 커뮤니케이션 과학연구의 전망. <기자협회보> 제163호.
1971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언론인 - 記協의 언론인 재교육계획은 한국 언론사상 획기적 결단이다. <기자협회보> 제194호.
1971 지식산업시대의 출판정책.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 제2회 세미나 발표논문.
1971 Mass Media in Asia - A Social Perspective. <신문연구소학보> 제8집, 141-150.
1971 지식산업시대의 출판정책. <출판문화> 제72호.
1971 악화 조정하는 양화 - 기자협회보 200호에 붙인다. <기자협회보> 제201호.
1971 커뮤니케이션 과학의 연구방향. 곽복산(편), <언론학개론>.
1972 사회변천과 언론-신문의 날 기념논문. 韓國日報 4월 7일.
1972 신문인의 變貌-신문의 날 기념논문. 韓國日報 4월 7일.
1972 아시아의 사회적 성격「매스커뮤니케이션」의 위치. <신문연구> 봄호.
1972 사회비평자로서의 매스미디어 - 매스미디어 국제학술회의에서. <방송> 10월호.
1972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매스 미디어. <신문평론> 제41호, 83-87.
1973 사회비평자로서의 매스 미디어(특집 I: 매스컴의 기능과 효과). <방송대학> 4월호.
1975 인간 성곡선생 - 주로 그의 사회사업가로서의 면모. <성곡논총>제 6호.
1975 미국·일본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최근 10년간의 동향. <신문연구소학보> 제12집, 5-31.

1975 경영진의 이해가 아쉽다 - 언론인 재교육에 관하여. <기자협회보> 제352호.
1976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동향: 특히 1965년 이후의 10년을 중심으로. <신문평론> 제64호, 31-37.
1976 가족계획의 홍보전략연구. <신문연구소학보> 제13집, 5-48.
1977 언론인 재교육을 재강조한다. <신문연구> 봄호.
1977 TV의 시청률 및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조사 -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신문연구소학보> 제14집, 5-48.
1978 김규환 外, 韓·日간의 커뮤니케이션 갭에 관한 硏究 <문교부 연구보고서>.
1978 김규환 外, 靑少年問題와 커뮤니케이션의 影響에 관한 硏究. <연구보고서>.
1979 한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스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구결과 요약서 3>.
1979 이민족간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고찰 - 한·일간의 커뮤니케이션 갶과 관련하여. <신문연구소학보> 제16집, 5-40.
1981 1981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신문연구소학보> 제18집, 7-64.
1981 제18회 방송의 날에 거는 기대. <방송회보> 제20호.
1981 방송은 각계의 이익과 관심 고루 반영해야. <방송심의> 제6호, 1-2.
1982 Marxist Perspective on Communication Theory. <신문연구소학보> 제19집, 5-30.
1983 The Communication Studies as a Discipline of Social Science in Korea: Review and Porspect. <신문연구소학보> 제20집, 9-16.
1983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 그 과정과 전망. <신문연구소학보> 제20집, 77-82.
1983 1983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신문연구소학보> 제20집, 131-167.
1984 커뮤니케이션학 분야 연구논문 목록 및 초록- 1976년이후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신문연구소학보> 제21집, 5-50.
1985 최근의 한국언론. <신문연구소학보> 제22집, 45-62.